

성경과 고대제국 <제 1 편> (8/13/2012)

칼럼을 쓰다 쓰다 이제는 별걸 다 쓴다 하실지도 모르겠다. 틀린 말씀이 아니다. 6 년동안 매주 칼럼을 쓰다보니 쓸 내용이 여간 마땅치 않다는 게으른 변명이다. 논술시험 처럼 누군가 매주 칼럼 제목이라도 정해 주면 고민이 덜 할 것 같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도저히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이때까지 쓴 300 여편의 칼럼중에서 적당히 재탕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허잡스러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기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생각다 못해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통박사>라고 알려진 조병호 박사(목사)의 <성경과 고대 전쟁>과 <성경과 5 대 제국>을 연대별로 다시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제국들은 대표적으로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니키아, 카르타고,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이며 오늘까지 역사는 반복되어 이어진다.

<BC 2000 년> : 창세기 전쟁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창세기 14 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당시는 서아시아를 앗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다. 롯이 선택한 땅인 소돔은 부유한 곳이었으며, 젊음과 번영을 누르던 곳이었다. 소돔인들은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도시국가를 유지하였으므로 실제의 소돔과 고모라는 허당인 셈이다. 12 년간 조공을 바치던 요단 지역 나라들이 13 년째에 들어와 앗수르를 배반한다. 앗수르 군대가 시리아 일대 국가들을 초토화시키는 와중에 싯딤 골짜기 즉 염해에 진을 치고 소돔인들과 전쟁을 치른다. 앗수르 도시국가 왕 4 명과 요단지역 왕 5 명이 맞서 대규모 전쟁을 치루나 앗수르가 승리하고 롯은 포로가 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병 318 명을 데리고 야습과 기습으로 조카 롯을 구한다. 이에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친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십일조다.

<히브리민족> : 아브라함 후손 70 명이 이집트에 왔을 때는 ‘요셉의 가족들’이라 불렀는데,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하는 430 년동안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이들 아브라함 후손을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다. 우리 민족의 일본 식민지 생활 36 년만으로도 광복 67 년인 지금까지 뼈 속의 한이 되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수모는 가이 짐작할 수 있다.

<바벨론과 앗수르 제국> :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이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다. 세계 4 대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앗수르이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가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B.C. 2,000 년경에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지금의 바그다드 남쪽 지역에 나라를 세운다. 앗수르는 B.C. 2000 년경 바벨론 지역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 ‘앗수르’라는 도시에 정착한다. B.C. 1800 년경에 앗수르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1792~1750)과 전쟁을 펼치고 빌레셋 1 세 (1115~1077 년) 때에는 지중해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고대 앗수르는 520 년간 서아시아를 지배했다. 앗수르는 B.C. 883 년부터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벌여 많은 나라들로 부터 조공을 받고 억압을 한다. B.C. 609 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앗수르는 철기시대 최초의 거대한 군사강국이었다. B.C. 10 세기에 이미 궁수와 창병을 갖춘 기병을 이용했으며, 주력은 최초의 전차부대였다.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혼혈정책으로 북이스라엘 민족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었고,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예루살렘 공성전을 실패하게 된다. 성경에 ‘블’이라는 이름의 티글랏 빌레셋 3 세는 진정한 ‘앗수르 제국의 창시자’로 평가받는다.

<아말렉 전투> :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집트)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겪는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이나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의 보호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다. 아말렉은 고대근동에서 호전적인 민족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들은 10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집트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며, 장차

이스라엘이 거대 민족으로 클 것을 염려하여 사막 한가운데서 말살시킬려고 한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최초 전략이며 전술이었다. 이후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계속 된다.

<300 년간 전쟁> :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에서 5 년간 31 개 도시국가를 공격해 모두 승리한다. 한건의 방어전도 없이 모두 공격전이었다. B.C. 1,000 년 다윗의 전쟁기록은 역대상 18,19,20 장, 총 3 장에 걸쳐 '전쟁사'로 기록되어 있다.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자, 동시에 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반면에 사사 시대는 가나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웃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게 한 것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18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과 싸워 이긴 웃니엘,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에훗, 블레셋의 공격에 막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 명을 죽인 삼갈, 시스라 공격에 맞서 바락과 함께 싸워 승리한 여사사 드보라. 300 명의 용사를 선발해 13 만 5 천명의 미디안 병사를 물리친 기드온과 들라와 야일, 암몬 공격에 싸워 승리한 입다. 뒤를 이어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이 있다.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40 년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다.